

■ 주요 뉴스: 애플 등 미국 대기업 고용 및 자출 둔화될 가능성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

-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20년 5월 이후 최저. 금리 상승 등에 기인
- 러시아 가스프롬, 유럽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 중국 정부, 금융권에 모기지 상환 거부 관련 건설업체를 지원하도록 권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8%], 달러화 약세[-0.6%],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주요 IT 기업들의 고용 둔화 예상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광산 및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7월 1.0%p 금리인상 전망 약화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6%,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격한 금리인상 관측 후퇴 등이 영향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폭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8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18.9원, +1.5원) 0.1% 상승, 한국 CDS 상승

		7/18일	7/15일	전일대비			7/18일	7/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30.9	3,863.2	-0.84%	국채 금리 10y	미국	2.99%	2.92%	7bp
	유럽	417.63	413.78	0.93%		독일	1.22%	1.13%	8bp
	중국	3,278.1	3,228.1	1.55%	CDS 5y	한국	52bp	51bp	1bp
	일본	휴장	26,788	-		중국	87bp	87bp	0bp
	한국	2,375.3	2,331.0	1.90%	위험 지표	EMBI+	-	498	-
환율	달러지수	107.43	108.06	-0.58%		VIX	25.30	24.23	4.42%
	유로화	1.0143	1.0080	0.62%		WTI유	102.60	97.59	5.13%
	엔화	138.14	138.57	0.31%	원자재	구리	334.8	323.5	3.51%
	위안화	6.7432	6.7572	0.21%		금	1,709.2	1,708.2	0.06%
	원화	1,317.4	1,326.1	0.6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애플 등 미국 대기업, 고용 및 지출 둔화될 가능성.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

-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경기하강 전망 등을 대비하여 일부 사업부의 인력 충원 및 지출을 줄일 방침. 이러한 조치는 애플이 추진하는 기본적인 경영전략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불확실성 시기에 직면하여 주요 결정이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 그 동안 애플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시장 전망보다 대부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움직임은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안. 또한 상당수의 여타 대기업들도 이미 수 주 전부터 애플과 유사한 행보
- 알파벳(구글의 지주사), 아마존, 메타 플랫폼(페이스북) 등의 IT 대표 기업은 예산과 고용의 증가세를 늦추기 시작.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플랫폼은 최근 일부 직원에 대해 해고를 단행. 다만 애플은 아직 해고에 동참하지는 않은 상황
- 한편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고용을 늦출 것임을 발표. Denis Coleman 최고재무책임자는 모든 지출 및 투자 관련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영 여건을 반영하여 채용 속도를 낮추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
- Envestnet Solutions의 Dana D'Auria는 그 동안 고용부문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대기업들의 최근 발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고용부문이 기대한 것만큼 견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희토류 관련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낼 필요

- 옐런 장관은 중국으로부터의 희토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태양광 패널 등 여러 주요 제품들의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 또한 견조한 공급망 확보는 결국 공급의 다각화를 의미한다고 부연

■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20년 5월 이후 최저. 금리 상승 등에 기인

- 해당 지수는 55를 기록하여 7개월 연속 하락. NAHB의 Jerry Konter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택건설 비용 증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매입 부담 가중, 향후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으로 주택건설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

■ MLIV Pulse 설문조사,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로 유로화 추가 약세 예상

- 792명의 응답자 가운데 69%는 6개월 후에 1유로당 0.9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또한 41%는 6개월 이내에 유로존 부채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높은 수준의 주가 변동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

■ 러시아 가스프롬, 유럽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보낸 서한을 통해 극히 이례적인 여건 등으로 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 이번 서한은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전면적인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
- 다만 러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가스 공급을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한편 EU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을 대비하여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수입을 '27년 200억입방미터('21년 81억입방미터)까지 확대하기로 합의

■ 영란은행 손더스 위원, 정책금리를 2%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해당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 또한 향후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계소득 감소 및 경제활동 둔화 징후도 있으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 중국 정부, 금융권에 모기지 상환 거부 관련 건설업체를 지원하도록 권고

-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건설 차질에 따른 모기지 상환 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건설업체 가운데 적격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금융권이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 이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발표

■ 중국 주요도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계를 강화

- 상하이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집단 검사 혹은 봉쇄 조치 연장 등을 시행. 한편 지난 주(7/17일 기준) 일일 평균 감염건수는 390건으로 그 전주(340건) 대비 증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9 현지시각 기준)

- ECB 대출 설문조사, 미국 6월 주택착공 및 건설허가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실물경기의 선행지표인 구리 가격,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시 - WSJ

(Dr. Copper's Patients Are All Ill)

- 자동차, 건설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리의 가격은 최근 급락세를 시현. 전세계 구리 소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있고,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도 향후 불확실성 우려가 높은 편
- 구리 가격의 하락세는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로 시작되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중국 경제의 가파른 회복은 기대난. 특히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 등 심각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
- 구리 가격을 통한 경기침체 예측력의 정확성 관련해서는 논란이 존재. 하지만 미국, 유럽, 중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경기침체 신호를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 수요둔화 불구 여타국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전망 - 블룸버그

(The US Is Exporting Inflation, and Fed Hikes Will Make It Worse)

-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속 소비가 증가하며 여타국의 고물가를 초래. 최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수요 둔화 징후가 발견. 그러나 금리인상은 미국 달러화 강세를 유도하여 여타국의 수입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
- 유럽 등 여타국 고물가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급등. 이러한 여건에서 ECB의 금리인상은 물가하락 효과보다 성장둔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 미국 수요 둔화에 따른 유럽 물가하락 효과는 향후 18개월간 0.5%p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아시아 국가들도 대외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대응. 다만 아시아 국가들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급격한 금리인상에 신중하며, 이에 통화가치 약세 및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

■ 미국 행정부의 물가 통제 수단, 연준의 통화정책 대비 비효과적 - Financial Times

(Democrats lack the tools they need to fight inflation)

■ 미국의 상반된 노동시장 설문조사 결과, 노동시장 건전성이 과장되었을 소지 - WSJ

(Diverging Jobs Data Raise Questions About Labor Market Health)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